

사회

불법사채 솜방망이 처벌 서민 두번 운다

광주·전남 450여명...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집유



추석 앞두고... 19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망월동 구묘역에서 묘비를 닦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법 사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적발된 대부분 서민 당사자가 벌금이나 징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반짝 단속' 이후에도 이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려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근절되지 않고 있다.

19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난무하면서 피해가 빚발치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차(4월18일~5월31일), 2차(6월7일~9월14일)에 걸쳐 단속을 벌였다.

광주에서는 1차 단속에서만 모두 18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2차 단속에서는 62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에서 검거된 불법대부업자 및 관련자만 251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구속된

대부업자는 1.2%(3명)에 불과하다. 전남 역시 각 경찰서별로 10명 이상씩 200여 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을 단속했지만 구속 비율은 낮다. 이들은 영세직업, 실직자는 물론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정금리(등록업체 39%, 미등록업체 30%)를 10배 이상 넘는 고금리를 챙겼고 일부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력까지 행사했지만 90%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대부업자들은 법원에서 징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요식업이나 의류판매업, 대리기사 등의 일을 하면서 10명 이내의 대출자에게 최고 200만~500만원씩 빌려주는 20~30대 미등록 대부업

불법사채업자 최근 법원 판결	
• 연 395% 금리 미등록 대부업자 양모(29)씨	▶ 벌금 300만원
• 연 292% 금리 8명에게 2050만원 대부 12차례 독촉문자 이모(27)씨	▶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연 185% 금리 무등록 대부업자 전과 있는 정모(30)씨	▶ 징역 10월 집유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연 188.7% 금리 30명에게 빌려주며 무등록 대부업자 지모(32)씨	▶ 징역 4월 집유 2년

자까지 생겨나는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법체계에서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 역시 고금리인지 알고 대출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신고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처벌을 받은 대부업자들은 판결 이후에도 영업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채무자들을 압박하거나 다른 업자에게 채권을 일임비율로 넘겨주면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공무원답게 행동하라"

선거법 위반 민형배구청장

1심 벌금 80만원 ... 직 유지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9일 의정보고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광산구 공무원 3명, 주민 1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되고 공무원은 당연 퇴직해야 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민 구청장은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공무원 2명은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 구청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주요 내용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유죄 인정 부분은 공무원임권을 제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민

구청장 등의 행적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했다. 그는 "공직자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외관도 갖춰야 하며 혼자만 공정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 그래야 한다"며 "아직도 재야·정당행사 등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피고인들은 정당인이 아니고 지방 공무원이며, 이번 행위가 공무원답게는 아니라고"고 주문했다. 민 구청장은 광주 광산선관위로부터 지난해 5월 김동철 의원의 의정보고회, 구보, 직능단체 간담회, 공직자 모임 등에서 김 의원과 서구 지역 한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할 호소했다며 고발당해 기소됐다. 다른 4명은 각각 문자메시지 발송,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후보를 홍보 또는 반대한 혐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산 성폭행범 컴퓨터 음란물 가득

경찰, 추가 범행 여부 조사

광주 광산 여고생 성폭행범인 입모(23)씨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아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입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장도 복원했다. 입씨는 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해 피

음란물과 피해자인 A(15)양의 신체를 찍은 휴대폰 영상을 복원해 사건 관련성을 수사중이다.

이날 광주 광산경찰은 "입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음란물로 추정되는 동영상 파일 43개와 사진 파일 92개를 발견했고 이 가운데 동영상 6개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입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장도 복원했다. 입씨는 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해 피

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영상을 지웠다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와 입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본원에 보내 의뢰한 결과 일치했으며,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입씨가 A양 성폭행 전 다른 여성을 300m가량 쫓아갔던 점으로 미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

최경주 전 민주당위원장 2년 구형

총인비리 대화녹취 지시 혐의

광주지법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9일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와 관련 공무원과 업체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주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부 최철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또 당사자들의 만남을 알려주거나 녹음을 몰래 설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광주시 공무원 박모씨와 경주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도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최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대화내용을 물어보라고 하기는 했지만 녹음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이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총인 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검찰은 또 당사자들의 만남을 알려주거나 녹음을 몰래 설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광주시 공무원 박모씨와 경주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경찰, 1570만원 성금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지난달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피해아동을 위해 157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전남경찰청은 19일 "피해아동이 성장해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남지방경찰청 복지회 명의로 가입하고, 피해아동을 수혜자로 한 10년 만기 보험증서를 가족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급 아파트 돌려 절도

32차례 1억4000만원 훔쳐

광주서부경찰은 19일 노루발뿔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전국의 고급 아파트를 돌려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이모(55)·한모(46)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8시42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윤모(60)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16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 걸쳐 1억40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이트서 만난 여성 집 금품 털어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속칭 부킹)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조모(23)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남구 주월동 A(여·25)씨의 집에서 현금 7만원과 금반지 등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

○조씨는 전남 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A씨가 잠깐 잠이 든 틈을 노려 범행.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남궁궁회 상일로 입구): 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교역입구):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인민회관 옆):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옆):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안양역):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옆): 031658-5110 용인점(용인역):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2층): 031376-4183 부천점(부천역): 032329-4400 남양주점(한호역 옆): 0708829-9903 부산점(부산역): 051818-8800 서안점(서안역): 051256-7200 울산점(울산역):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옆): 055297-6080 진주점(진주역): 055745-9870 대구 점(대구역): 053425-4440 상역점(상역역): 053426-1511 남일동점(남일동역):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054244-5110 안동점(안동역): 054659-2248 광주 점(광주역):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주역): 063232-5728 군산점(군산역): 063446-0198 익산점(익산역): 063638-5000 남원점(남원역): 063632-2626 대전 대덕점(대덕역): 042254-5110 대전점(충청역):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25-6300 충청 천안점(천안역): 0411553-2938 광주점(광주역):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04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064753-45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통체 CE마크 인증 GMP 제조공예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